

‘봉선동과 광양’ ...광주·전남 대선 ‘핫코너’ 표심 촉각

⑦ 6·3 대선 D-7

21대 대선이 임박하면서 진보진영의 텃밭임에도 유독 ‘보수 표심’이 두드러졌던 광주 남구 봉선동과 광양시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양 지역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보수 후보 최초로 광주·전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얻는데 기여한 곳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핫코너’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두 곳을 전략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텃밭 단속과 기존 지지율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대선 개표 결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호남 득표율은 광주 12.72%, 전남 11.44%, 전북 14.42%였다.

광주지역에서는 ‘광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남구 봉선2동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졌다.

윤 후보는 봉선2동 5투표소(38.76%), 4투표소(25.19%), 1투표소(25.0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인근인 봉선1동(12.84%), 방림1동(11.91%), 방림2동(10.45%)과도 크게 차이나는 수치다.

봉선2동 주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례적으로 보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학군이 좋기로 소문난 봉선2동은 의사·변호사·기업 대표 등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

민주 텃밭서 ‘보수 표심’ 강제 국힘, ‘21.7%·15.7%’ 선전 민주, 90% 득표 바로미터 사활

고, 대형평수의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곳이다. 전남지역에서는 광양시가 보수 표심이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양 유권자 10만876명 중 8만1,441표를 얻어 득표율 80.73%(윤석열 후보 15.7%)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인 광양시 금호동 제3투표소에서 윤석열 후보는 36.53%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광양은 역대 여덟번의 대선에서 모두 민주당 계열 득표율이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낮았다.

광양은 광양제철소에 영남 출신 직원들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경남 하동과 가까워 호남 지역색이 짙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대선 당시 전남에서는 영남 출신 직원들이 많은 영광 흥농읍 원자력발전소 인근 제5투표소에서 윤석열 후보가 40.59%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고흥군 도양읍 제6투표소(국립소록도병원 내 복합체육관)는 전체 355표 중 윤 후보가 207표(58.30%)를 얻어 호남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을 앞질렀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통 지지층 내 군열 조짐이 감지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 전략을 조정하는 등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전투표 참여하세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을 사흘 앞둔 26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서구 차평동에서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김민석 최고위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광주선대위원장 등이 봉선2동을 찾아 ‘경정 간담회’를 가졌고, 지난 15일 이재명 후보는 전남 동부권 순회 중 이례적으로 광양제철소 주택단지를 유세 장소로 선택하기도 했다.

광주·전남 득표율 90% 이상을 목표로 정한 민주당은 고소득·고학력 비중이 높고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하다고 판단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운동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계엄, 내란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이번 선거는 지난 대선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선대위도 봉선동을 비롯해 동구 충장로, 광산구 수완동, 북구 말바우시장, 서구 금호동 등을 전략 지역으로 설정하고 중앙당 차원의 합동유세 등 총공세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최근 광주지역 온라인 가입 관리당원의 80%가 20~40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투표 성향이 유연한 젊은층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김문수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가 고흥·순천 출신이라는 점도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거나 보수 정권의 혜택을 받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보수 후보의 지지세가 높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며 “지난 대선에서 강세를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지세를 결합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11.44%를 넘어 15% 이상의 유의미한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여름휴가 광주로” ...시, 최대 5만원 할인 ‘숙박세일 페스타’

축제·관광상품 연계 추진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달 5일부터 7월 17일까지 ‘2025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지역 특별기획전’을 운영한다.

이 행사는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여름휴가

철을 맞아 광주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실속있는 숙박 혜택과 풍성한 관광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인권쿠폰은 카카오톡, 여기어때, 11번가, G마켓, 하나투어, 노랑풍선 등 22개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선착순 발급된다.

할인권 발급과 예약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가능하며 결제까지 완료해야 한다.

발급된 할인권은 다음달 5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쿠폰은 7만원 이상 숙박 예약때 5만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숙박세일 페스타 기간에 다양한 축제와 전시, 스포츠 등 여행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 세계 스트리트댄서들이 참여하는 댄스배틀경연 ‘스트릿컬처 페스타’가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스트리트 컬처 씬의 토크, 라이브 음악, 브랜

드 전시, 푸드, 수제맥주, DIY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렛츠 플로피3.0’가 다음달 6일과 7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또 전국 소방인들의 화합의 장인 ‘전국소방체전’이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무등경기장을 비롯한 광주 전역의 체육시설에서 열리며 미래산업 비전을 제시할 ‘미래산업엑스포’가 다음달 25일부터 2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윤승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 일시 5월 29일(목)~30일(금)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내·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안내

선거일 투표

📅 일시 6월 3일(화) 오전 6시~오후 8시

📍 장소 지정된 투표소 ※ 각 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준비물 신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위의 신분증 중에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단,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사용불가)
 ※ 그 밖의 신분증은 구·시·군위원회로 문의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 후보자 정보 확인
 info.nec.go.kr

📋 정책 공약 확인
 policy.nec.go.kr

🗣️ 후보자 토론 다시보기
 debates.go.kr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